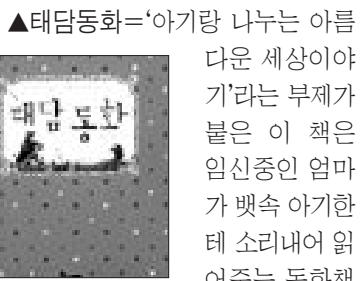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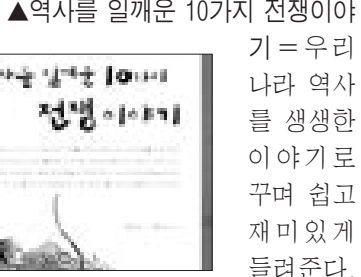


어린이 책꽂이



태담동화= '아기랑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임신중임마가 배속 아기에 소리내어 읽어주는 동화책이다.

〈한솔수북·1만원〉



역사를 일깨운 10가지 전쟁이야기= 우리 나라 대표적인 군담소설 '임진록'을 어린이·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엮었다.

〈랜덤하우스·9천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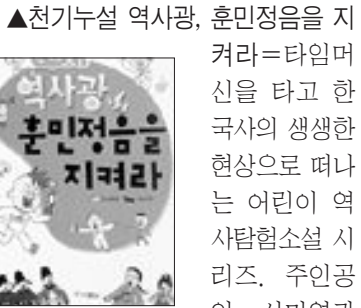
무자비한 윌러비 가족= 세계 명작에 흔히 나오는 인물과 사건들에 독특한 윌러비 가족을 등장시켜 색다른 재미를 느끼게 하는 어린이 소설.

〈랜덤하우스·9천원〉



임진록= 우리 나라 대표적인 군담소설 '임진록'을 어린이·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엮었다.

〈창비·9천원〉



천기누설 역사상 훈민정음을 지켜라= 타임머신을 타고 한 국사의 생생한 현상을 따라가는 어린이 역사탐험소설 시리즈.

〈스콜라·9천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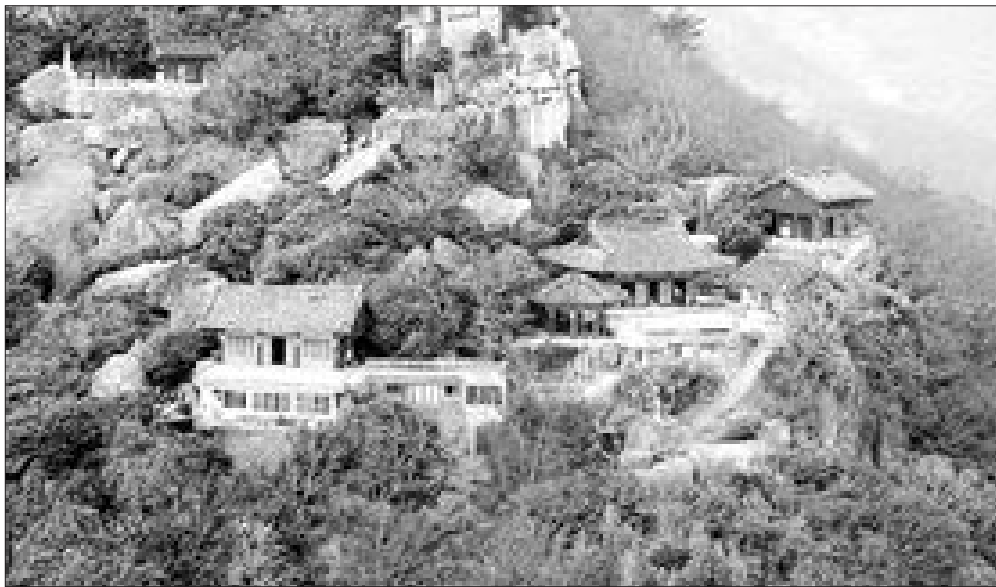
원효가 신라의 서태지였다고?

서라벌 사람들 심윤경 지음

신라 지증왕의 아내 연제 부인이 풍을 썩던 그 돌레가 어른의 발걸음으로 여덟 걸음이었다.

신라 선덕여왕은 당시의 다이애나비, 원효는 화려한 헤드스핀으로 흥법회에 모인 대중을 사로잡은 서태지였다.

작가 심윤경씨가 신라시대를 배경으로 신화적 상상력을 풀어낸 역사소설 '서라벌 사람들'이 출간되었다.



책에서 원효는 화려한 헤드스핀으로 흥법회에 모인 대중을 사로잡은 서태지로 그려진다.

상상력이 돋보인다. 먼저 신라가 불교를 공인했던 법흥왕(?~540) 시절, 신라 토착 신앙을 성(性) 숭배로 해석했다.

신라의 토착 신앙과 불교의 유입 과정에서 겪



는 진통, 성과와 진골의 대립 구조를 소설의 큰 축으로 삼은 것이다.

작가는 전환기의 정치·문화적 상황을 마술적 상상력으로 이야기했다.

엄청난 대본 크기 덕에 '한 자 다섯 치의 양말'을 지녔다는 지증왕의 비로 간택된 연제태후는 보통 사람 세 명을 합친 것보다 몸이 컸다는 것이다.

'지증왕의 양말에 대한 기록은 강력해진 왕권에 대한 상징'이라는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기반한 상상력을 덧씌웠다.

또 신라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묘사도 현대적이다. 무열왕은 할 일없이 집안에서 빈둥거리는 '쿠치 포테이토'(couch potato chip)였다.

원효대사는 포교를 위해 단단한 바가지를 찰 수 들고다니는 바가지를 머리에 쓰고 브레이크 맨스의 하얀 헤드스핀을 선보였다.

정사에서 탈락감치 벗어나 있는 작가의 상상력은 진지하고 지적인 주제 의식으로 더욱 빛을 낸다.

〈실천문학사·9천800원〉 /오공록기자 kro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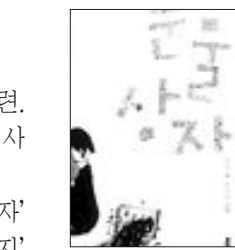
흘리는 눈물엔 저마다 사연들이 있다

눈물상자 한강 지음

슬플때도 기쁠때도 화가 나든 눈물은 나기 마련.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에는 이유가 어쨌든 저마다 사연이 담겨있다.

소설가 한강씨가 어른들을 위한 동화 '눈물상자'를 펴냈다.

책은 이들을 통해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눈물이 존재하는지, 어떤 이유에서 흘리든 순수한 눈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등 눈물에 담긴 여러가지 의미를 보여준다.



〈문학동네·7천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부 기자가 쓴 '클래식 이야기'

굿바이 클래식 조우석 지음

최근 부족 자주 출간되는 책이 '클래식 음악'과 관련된 것들이다.

30여년간 문화통 기자로 활동해온 조우석씨가 펴낸 '굿바이 클래식'은 '인문학으로 읽는 클래식 음악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조금 색다른 클래식 서적이다.

베토벤, 모차르트를 넘어 현대음악을 논하면서 저자는 인류학, 사회학, 경제학, 불교, 미술 등 다양한 장르를 동원, 클래식의 고정 관념을 깨뜨린다.

한때 '피아노 음악 오타쿠'였고, '미스터 클래식'이었던 저자는 클래식과 관련한 만만찮은 내공을 통해 우리 시대 음악을 듣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시대 음악과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동아시아·1만2천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 읽기

C.S루이스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에는 늘 따라붙는 화려한 수식어들이 있다. 29개 언어로 번역된, 9천만 부 이상 판매된, '반지의 제왕' '어스시의 마법사'와 함께 세계 3대 판타지로 꼽히는, 블록버스터 영화로 제작되는, 카네기 상을 수상한 작품 등이다.

'나니아 연대기'는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연대기적으로 관련이 있는 일곱 편의 이야기를 통칭한다.

하지만 영화에서 받는 느낌과 원작에서 받는 느낌은 상당히 다르다.

'나니아 연대기'의 각 작품들이 속속 영화화되고 있다. 2005년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 시작으로 최근에는 '캐스피안 왕자'가 개봉되었다.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 C.S 루이스는 기독교 신학자였다. 개방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



작고 과학적인 분석을 앞세운 그의 신학이론은 정통신학과 비교해 논란의 여지가 많다.

기독교 사상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나니아 연대기'는 종교의 벽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종교의 한계를 뛰어넘어 문학적 성취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독자로부터 사랑을 받는 작품이 됐다.

십년 전 즈음에 배낭여행을 하고 있을 때였다. 호주에서 한 달 가량 신세를 진 선배가 헤어지기 전 책을 한 권 내밀었다.

까맣게 잊고 지냈던 그 책을 읽게 된 것은 C.S루이스가 쓴 다른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읽고 난 뒤였다.

딱딱한 학자로만 여겼던 그가 정통적인 동화문법으로 창조한 '나니아 연대기'를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알고 나서부터였다.

좋은 책이란 몇 번을 읽어도 다 읽고 싶은 책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나니아 연대기'는 나니아라는 나라와 그 나라가 속한 세계의 시작과 멸망을 그린 판타지 동화로, 어린이들이 읽을 때는 어린이만의 세계가, 성인이 읽을 때는 성인 눈높이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다.

나니아가 창조될 때의 흥분이 그 세계가 멸망으로 인해 슬픔으로, 그리고 그리움으로 변할 때까지 손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흡입력이 대단한 작품이다.

3대가 함께 읽을 수 있는 작품으로 평생 가까이 두고 싶을 때 읽을 때마다 완벽한 신세계를 불러 줄 수 있는 책이 바로 '나니아 연대기'이다.

김남승(아동문학가)

대인동상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지회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번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고흥신도시공인중개사
고흥, 녹동터미널옆 (상가부지1,300평) 평당70만원
고흥, 녹동터미널옆 (상가부지1,300평) 평당70만원

첨단월계공인중개사
급매
첨단중심 상업매매
첨단 원룸 건물 급매

법원경매 전문
지지경매컨설팅(주)
법원경매입찰장(원)
명확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제대로 된 상담

법원경매 전문회사
- 불 앞서는 사람들 - (주)옥션코리아
성공적 파트너 / (주)옥션코리아 무료상담
법원경매 전문회사

국민공인중개사
한 011-635-7939, 010-3114-6103
건물
6의 사할 급매